

한지복합문화공간 '전주천년한지관' 개관

시, 흑석골 일원에 전통한지 제조·한지원형 학습·체험 공간 등 조성

천년을 이어온 전주한지의 원형 보존과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이끌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한지장, 전통한지 생산시설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제조·생산의 맥을 이어온 흑석골 일원에 조성된 전통한지 제조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 (완산구 흑석로 85)의 개관식을 했다.



전주시는 2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한지장, 전통한지 생산시설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제조·생산의 맥을 이어온 흑석골 일원에 조성된 전통한지 제조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의 개관식을 했다.

△회의실 등 문화·사무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향후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교육 △한지원료 보급사업 △한지제조기술 책자 발간 등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생활한지예술 △한지조형 전시 기획 △기업연계 협업 등 전주한지 대

중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천년한지관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일·월요일은 휴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한지의 원형 보존과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앞서 한지산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한지원료 다나무 수매사업, 전주한지장 지정,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간 친서 복본전달, 전주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는 바티칸 교황청과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크 투브르박물관, 이탈리아 지류 문물관 등으로부터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만큼 뛰어났다"면서 "전주천년한지관이 전주한지의 원형을 보존·복원하여 역사성이 살아있는 고품질 한지를 생산하는 거점공간이자 한지의 세계화를 이끌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5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일환으로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작가가 선보이는 1인 극장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일환으로 프로그램 진행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림책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는 5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일환으로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작가 1인 극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해 책이라는 정적인 소재에 그림책 소품을 이용해 동적인 요소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림책을 만든 작가가 1시간 동안 선보이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일 삼천포 서관에서 진행된 난주 작가의 '냥이의 이상한 하루' 그림책을 주제로 한 1인 극장과 전주시립도서관 곳곳에서 펼쳐진 한기현 작가의 '잡자리 편지' 1인 극장을 시작으로 △미우 작가의 '공포의 새우눈' (14일, 송천도서관) △장현정 작가의 '뱀' (21일, 평화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총 4회의 공연이 펼쳐졌다.

오는 28일에는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김라라 작가의 '미술 시간'

미술 시간' 1인 극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1인 극장에서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더욱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공연 작가의 사인회와 전주시 동네책방과의 협업을 통한 그림책 전시 및 판매도 진행되고 있다.

장현정 작가의 1인 극장에 참여한 시민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뱀'이었는데, 아이에게 작가님과 좋아하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라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그림책은 언어장벽이 없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민중 공룡으로 한 아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펼쳐진 한기현 작가의 '잡자리 편지' 1인 극장을 시작으로 △미우 작가의 '공포의 새우눈' (14일, 송천도서관) △장현정 작가의 '뱀' (21일, 평화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총 4회의 공연이 펼쳐졌다.

/김윤상기자

'가맹점과 함께하는 전주맛배달 소통마당'

시, 매월 가맹점 애로사항 청취·논의

전주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가맹점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는 23일 팔복동 소담스퀘어 전주에서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상담캠페인 추진을 위해 '가맹점과 함께하는 전주맛배달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23일 팔복동 소담스퀘어 전주에서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상담캠페인 추진을 위해 '가맹점과 함께하는 전주맛배달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20여 개 가맹점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맛배달을 직접 운영해 본 가맹점의 애로사항과 설문 조사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또 개발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간 전주맛배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소통마당에서는 전주맛배달 사업취지 및 목표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과 홍보방안, 전주맛배달 앱 환경개선 방법 등이 안내됐으며, △추가 기능 개선 요구 △가맹점주들의 노하우 공유 등 향후 전주맛배달이

소비자·가맹점 상생 기반 지역 대표 배달앱이 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국장은 "이번 가맹점과 함께하는 소통마당에 가맹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소비자와 가맹점이 함께하는 전주맛배달 소통마당에 대한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가맹점 애로사항의 신속한 개선 및 소통마당의 정기적 추진으로 전주맛배달을 지역 대표 상생배달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앱 중개수수료가 없는 전주맛배달은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 3만여 명에 누적주문 5만4000건, 매출액 10억8000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목표인 가입 가맹점 4000개소, 소비자 5만 명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전주맛배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문의는 '전주맛배달' 누리집(www.jorder.kr) 또는 콜센터(1899-1010)를 이용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여드름 치료비 지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청소년일 차 공약으로 '여드름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6.1 지선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전문상담'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 후보는 23일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다른 질환이 여드름"이라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고액의 진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여드름 치료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청소년 10명 중 8명 꼴로 여드름으로 인한 고통과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드름치료 비용 지원을 통해 1인 당 연간 최고 3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연계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 보다 편리하고 꾸준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드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병적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다만, 여드름의 경우에도 병에 의한 치료의 경우에만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드름 치료와 관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우 후보는 "2019년 조금씩 줄어들던 여드름 환자 수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2020년 10만 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에 맞춰 여드름 치료를 미용적 접근이 아닌 질병치료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후보는 오늘 오전 7시 30분 대방사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도청사거리, 오후 2시 한국은행사거리 유세에 이어 오후 5시 30분 서서 활동 사거리에서 유세를 갖고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매주 토요일 조선팝 상설공연 펼쳐진다

전주시, 6월 11일부터 8주간 풍패지관·기지제 수변공원에서 진행

소리의 고장 전주의 주말이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총 8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2022 전주 조선팝 상설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을 지원하며, 공연 영상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한 뒤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조선팝 예술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gyouth7@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조선팝 상설공연 운영 사무국(063-226-2141)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시는 조선팝 상설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를 이어 조선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해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조선팝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이색 선거운동 펼쳐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방법이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민 후보가 현수막에 드러낸 '잘생긴 #전주시장후보 2' 김경민 QR코드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다른 후보들은 사진을 거는데, 사진은 어디서 보란 말이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잘생긴"은 인물이 잘생겼다"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정부를 통해 전

주시를 잘 만들겠다, 이끌겠다는 것이고, QR코드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청년유권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선거차량에 고추모형 2개를 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미신이지 않느냐"라는 질문부터 "남자로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라고 질문이 오기도 한다

이다. 이에 김 후보 캠프측은 "사건적으로 고추는 매운맛의 상징이고, 향산화작용, 항암효과, 감기·두통·치통 완화의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유권자의 상상을 끌어내기 위해 고추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길 바라며 걸었다"고 해명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생명기업 맞춤형 지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이 전북지역 농생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돕는다.

연구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2년도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소재 기술지원 수혜기업들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생명(소재·식품·화장품) 분야의 기업에 성분분석·효능평가·인증지원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매출확대와 고용 창출의 성과를 이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

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원은 올해 (주)한농네이처랩, (주)사바이오, 국민바이오(주), (주)마더스제약, 유니크바이오텍(주), (농)순창장류(주) 등 도내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성 소재들의 동물수준 유효성 평가 및 지표성분 분석에 대한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원은 또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계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윤상기자

서운근 전주시장 후보, 3대 노인 정책 발표

정의당 서운근 전주시장 후보가 "기초연금 50만 원 인상 추진 및 수혜자 확대",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여가시설 및 워터 확충" 등 3대 노인 정책을 발표했다.



23일 서 후보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최대 307,500원으로 노인빈곤 해결에는 여전히 턱없

이 부족하다"면서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려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을 낮추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후보는 "노령층의 경제활동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어르신들 사이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해 이를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시설 및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